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출범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상임대표 고현수)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이범재)과 통합, 3월 18일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으로 출범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통합 출범식을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와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이론과 모형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 활동 촉진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립된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는 권익옹호사업, 조례제정운동, 교육사업, 대외협력사업, 인권상담, 후원 및 결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사회복지아카데미 4월 교육 안내

기초행정실무교육

일시: 4월 8일 (화) 09:30~17:00
내용: 문서관리, 재무회계의 이해, 예산편성 및 결산, 후원금 관리 등
참가비: 5,000원(중식비) - 수료증 발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일시: 미정 (1일, 3시간)
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유형, 사회복지와 인권
참가비: 무료

사회복지홍보실무 교육

일시: 4월 24일 (목) 13:00~17:00
내용: 효과적인 현장서진형의 이론과 실제
참가비: 무료 - 수료증 발급

“사회에서 당당하게 생활하길”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이기동 교사

어김없이 월요일 오후가 찾아오면 그는 마음이 바빠진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을 서두르는 시각, 그는 제주북초등학교 후문 맞은편에 위치한 제주장애인야간학교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2년 전 (주)다움커뮤니케이션에 입사하면서 제주에 내려 온 이기동씨(30).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수학 선생님이 되신다는 이씨를 3월 24일 오후 장애인야간학교에서 만났다.

“숙제검사 먼저 하겠습니까. 숙제는 해 오셨나요.”

학생이 풀어 온 인수분해 숙제를 칠판에 다시 쓰며 자상하게 문제를 함께 본다.

“중요한 부분이니 잊으시면 안돼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검정고시(4월 13일)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탓일까. 이 교사의 얼굴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선생님, 노트 정리 좀 할게요.” 장애인인 강모씨(12·여)가 공책에 풀이과정을 꼼꼼히 적는다.

강씨는 “어려운 수학을 쉽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다”면서 “열성이 정말 대단하다”며 선생님을 추켜세웠다. 이날 강씨는 다른 학생들이 결석해 인대임 수업을 받는 호사(?)를 누렸다.

이 교사의 야학 경력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신입생 시절, 야학 동아리인 ‘어리회’에 들어가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2006년 4월부터 제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이 교사는 신입직원 시절에는 야학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난 뒤 ‘더 이상 늦추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팀원들에게 사정을 털어냈다. 팀원들의 흔쾌한 승낙을 얻은 그는 새로운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이 10년째 이어져 “장애인 장벽 여전·중년 교육 부족” 지적

분야를 해 보고 싶어 같은 해 11월 장애인 야학을 지원했다. “월요일에는 야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도 팀원들이 배려를 해주죠. 지난해 우리 팀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팀원들은 이 곳에 50만원을 선뜻 내봤습니다.” 이 교사는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졸업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는 이 교사는 “장애인들이 야학을 졸업한 뒤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한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영

화 관람을 갔던 예를 들며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장벽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극장에 들어가보니 맨 앞자리에 휠체어 좌석이 마련됐어요. 맨 앞에는 비장애인들이 잘 앉지 않잖아요. 외화의 경우에는 자막을 보기도 힘들고,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안고 다룬 좌석으로 옮겨 영화를 관람했지요. 장애인을 위해 좌석을 만들었지만 장애인의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는 “예전에도 장애인학교는 있었으나 40~50대 장애인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년전

교육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30~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생활여건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40~50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 부족한 점도 아쉬워했다.

한편 2004년 6월 문을 연 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연중 문해반과 검정고시반(초·중·고 등부)을 운영하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노인 무료진료서비스 확대 필요
시설 탐방·제주수출음식자활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짜짜공체교육교실·소식마당
푸드뱅크·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독자의소리
- 특집 7면
새로운제주인맞아들이기 세미나

장수한의원

Tel : 064-742-7585

"장수한의원은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휴진

신제주종합시장

제원아파트

● 신한백화점(구)

● 그랜드호텔

장수한의원



‘아이사랑 행복카드’ 탄생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비씨카드(주) 등은 3월 12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는 ‘아이사랑 행복카드’ 협약을 맺었다. 김태환 지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순호 도의원(맨 왼쪽), 신백훈 농협 제주본부장(가운데) 등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유형별 자원조사 실시

협의회, 복지·보건·문화 등 8대 서비스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유형별 자원조사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제주시가 지난달 공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유형별 자원조사 전문기관에 응모해 자원조사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7월까지 제주시 26개 전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주민생활 8대 서비스(복지, 보건, 고용, 문화, 교

육, 주거, 관광, 체육)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한다.

8월 중에는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읍·면·동사무소와 이사무소, 복지시설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유형별 자원조사를 통해 확보된 인적·물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서비스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민·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인 전용 실버구급차 추가 도입

제주도 소방본부, 특수구급차도 조기 배치

노인 전용 실버구급차(사진)가 추가로 도입된다. 특수구급차 2대도 교체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119 구급대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노인 전용 실버구급차 1대와 특수구급차 2대 등 모두 3대의 구급차 구입을 앞당겨 이달 초 일선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실버구급차는 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119가 노인 복지 향상을 마련해 오고 있는 차량으로 도내 3개 소방관서에 연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실버구급차 이송 대상은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비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수습 현장도 지원하고 있다.

실버구급차는 2005년 처음 배치된 이후 지금까지 2228명이 이용했다.

새로 도입되는 특수구급차 2대는 일선 현장에 배치돼 출동이 많았던 구급차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확’ 달라진다

개최시기 앞당기고 제주시·서귀포시 분산개최

노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 10월에 개최되던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이달 열린다. 또 노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최지역을 분산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오는 30일 서귀포시시민회관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

최한다. 제주도는 민간업체 고용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일자리 전문기관과 노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직을 원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노인 무료진료서비스 확대돼야”

아라복지관 조성태 부장 석사 논문서 밝혀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질병 치료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서비스와 방문진료서비스가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조성태 부장(사진)의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주농촌지역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9명(62.9%)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질병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할아버지(36.5%)와 할머니(27.7%) 모두 약값과 치료비가 비싸다는 점을 꼽았으며, 80세 이상 노인은 교통 불편 등으로 병·의원에 가기가 힘들어 질병치료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역 병·의원이

무료진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병·의원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무료진료활동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병·의원이란 홍보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성태 부장은 밝혔다.

또 의료진이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병원이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진료했을 경우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을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 병·의원을 찾기가 힘든 농촌지역 노인들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은 보건소의 방문보건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65세 이

상 저소득층(차상위층)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22명(9.6%)만 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들에 한해 80세 이상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소득기준에 의한 대상 구분과 관계없이 병·의원을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 방문간호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물리치료를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배치하고, 읍·면 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시설을 설치해 병·의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들이 물리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산남에 중증장애인 무료 생활시설 생긴다

제주도, 9억8000만원 투입...내년 2월 개원

서귀포시에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료 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9억8400만원을 들여 산남 지역에 정원 40명 규모(904㎡)의 중증장애인 무료 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현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창암재활원 등 5곳 있으나 모두 제주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산남 지역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제주도는 시설 설치 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뒤 오는 6월 착공, 내년 2월 개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협의회 월별 후원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8년 1월	2008년 2월
재가 후원금	470	560
난치병환아 지원후원금	40	100
사회복지사업후원금	1,570	1,545
총계	2,080	2,205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시사는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일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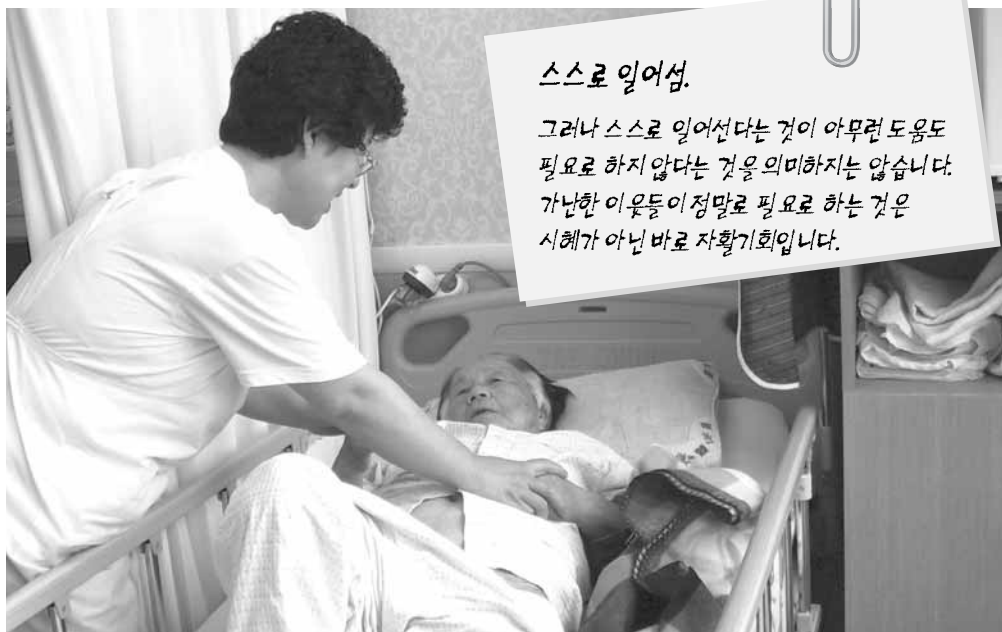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채용하고, 전체 장애인 고용률을 30% 이상 유지하면서 이

중 50%는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작업·편의시설 설치·수리비용, 장애인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으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주시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설탐방

(5)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



상생과 통합의 복지공동체

도내에는 4곳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그 중 제주시 오래동(아구장 2층)에 위치한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를 찾았다. 2000년 9월, 제주시자활후견기관으로 문을 연 뒤 지난해 7월 명칭을 바꾼 이 곳에는 고은택 센터장을 비롯해 직원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수눔음'이란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의 품앗이로 '수눔어간다'는 뜻이 명사화된 말이며, 함께 품을 교환한다는 의미다.

고용지원센터 등 운영 통해 저소득층 자립 지원 주거환경개선 ·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사업 전개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이하 수눔음)는 저소득 실업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저소득주민종합지원센터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노동과 유용한 가치창출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이 사회적 차별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복지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Community Supporters)이다.

수눔음의 사업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고용 및 자활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촉진 ▲공공 및 민간부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한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지역사회 자활지원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 ▲탈빈곤과 건강한 지역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사회운동 전개이다.

이를 위해 부설기관으로 수눔음자활교육정보관, 청소년자활지원관, 가사간병교육장, 해오름요양보호사교육원, 고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 제주(화장실 전문청소)’, ‘해오름간병회(유료간병)’, ‘이편한집(집수리)’, ‘파랑새 청소용역(준공청소)’, ‘에코페트를 제주생활폐자원 수거’, ‘늘푸른 사람들(주택관리)’, ‘아가맘(산모도우미)’ 등 자활공동체 사업단은 부설기관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0여명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 자립했다.

자활기금 조성 및 보호시장 창출사업으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수선 ▲제주돌봄센터 전세자금 지원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 현물급여 민간위탁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맞춤형 보금자리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결식위기가동 조·석식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자원동원을 통한 방과후 아동보호지원사업(공동모금회), 산모신생아도

우미 서비스(보건복지부), 결식아동을 위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급식센터(SK행복나눔재단), 노인돌보미바우처(보건복지부), 조손가정아동 ‘수호천사’ 파견사업(제주시교육청),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노동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은택 센터장은 “8년 동안 센터에 근무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까지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문의=064-722-8219.
〈추영민 명예기자〉



“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시행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다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수시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 목적만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5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이용자력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수시인출금의 용도와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보건의료비와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도박이나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 아니면 최고 9000만원까지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다. 단,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 지급금이 줄어든다.

수시인출금 대상도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 손자, 손녀까지 늘렸다. 이와 함께 불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다음달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주택연금은 집 한 채를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사회복지시설도 이젠 ‘사람 중심 경영’

뉴패러다임센터-제주장애인요양원 등 양해각서 체결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 산하기관인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과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권혁선)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소장 정인수)와 사람 중심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3월 14일 체결했다.

제주장애인요양원 등은 정기적인 시설평가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한 의사소통방법 개선이 필요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제주케어하우스는 각각 ‘뉴영나영 문밖’, ‘미래찾기’라는 프로젝트를 구성, 3개월간 뉴패러다임센터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뉴패러다임센터 임찬빈 팀장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사람이다. 21세기 지식경

제 사회속에서 근로자들의 창의력과 잠재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조직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원장은 “사람중심 경영 도입 양해각서 체결이 지역 사회의 좋은 사례가 되어 곳곳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석왕 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이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경쟁력의 모태는 근로자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이며, 더불어서 이를 통해 제주장애인요양원이 제2의 창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하다”며 “사람중심의 경영을 통해서 제주의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도약하는 데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제주도자원봉사센터장 취임

신상순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회장이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신상순 센터장은 “4H-연맹 활동 및 체육단체 등을 이끌어오면서 어려운 이웃과 단체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장 선출

고두승 아라종합복지관장은 3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감사 선임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양광호 원장은 2월 28~29일 대전에서 열린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장에 이상호씨

제5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장에 이상호 전 제주시부시장이 3월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장애인 사회성 'UP' ...노인 자신감 '충만'

짝짜꿍 체육교실 '일석이조'

제주애덕의집 10월까지 주 2회 운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제주애덕의집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마주보며 함께 하는 짝짜꿍 체육교실'이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성을 키워주고 노인들에게는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3월 27일 오후 제주애덕의집 다목적실. 중증장애인과 노인 70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리듬강사 김민수씨(꾸러기 유아플러스팀장)의 진행에 맞춰 흥겹게 몸을 흔들고 있다.

일대일로 손을 잡고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아직은 서툴고 힘들어 보이지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얼굴엔 송글송글 땀방울과 함께 환한 웃음이 피어난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장애인과의 2시간은 눈 깜짝 할새 지나간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노인은 “나이가 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자식들의 권유로 이 행사에 참가했는데 여기 와서 중증장애인과 마주하고 보니 젊었을 때 내 아이들을 키우던 생각이 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기쁘다”며 “반갑게 맞아 주는 장애인들



의 얼굴을 보면 세상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애덕의집 이대원 원장은 “노인들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감을 되찾아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살아가고, 중증장애인들도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주 2회(화·목요일) 기초체력덕련, 수중운동, 근육이완운동 등이 진행되며, 발표회도 갖는다.

〈이소영 명예기자〉

소/식/마/당

고래개발(주) 장형만 대표에 감사패 전달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3월 7일 고래개발(주) 대표 장형만을 방문, 장형만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 대표는 아가의집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이 심방중격결손증을 앓고 있으나 수술비가 부족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1000만원을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여학생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웃음과 함께하는 노풍당당 개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복)은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시·도생활체육협의회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3월 3일 ‘웃음과 함께하는 노풍당당 건강체조·댄스교실·가요교실·민요교실’을 개강했다. 경로당 60곳에 전문강사 19명이 배치된 이번 프로그램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공공성 토론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지부장 석건)는 2월 28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이끌고 있는 박경양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정책변화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운영비 차등지원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현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3월 25일 법환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제2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8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3회에 걸쳐 산남지역 초등학교 214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농협제대출장소 장애인요양원자매결연



농협중앙회 제주대 학교출장소(지점장 김길찬)는 2월 29일 제주장애인요양원을 방문,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농협 제대출장소는 나눔경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데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으며, 제주장애인요양원 또한 농협 제대출장소가 추진하는 봉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행사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3월 21일 아라주공관리사무소(소장 강성구) 직원, 아라초등학교 학생, 주민 등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화단과 도로변에 철쭉과 데이지, 마가렛, 줄장미 등을 심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제주시립희망원

제주시립희망원(원장 박정해)은 2월 20일 대전시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시설장 세미나에서 부랑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도너츠와 우유로 사랑전달



아동복지시설에 도너츠와 우유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프라이م 도너츠 정진소 대표와 서울우유 동부대리점 문진화대표.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일지역아동센터에 일주일에 한번씩 사랑이 가득 담긴 도너츠와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

제일지역아동센터 박영식 원장의 지원 요청에 흔쾌히 승낙, 도너츠 50여개와 우유 50개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

이들의 이런 나눔에 제일지역아동센터는 간식비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다.

박영식 원장은 “아이들이 어느 간식시간보다도 도너츠와 우유를 먹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면서 “힘든 시기에 뒤에서 묵묵히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두 분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다음 -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협약

(주)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석종훈)과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주 지역공헌 프로젝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jeju.daum.net/daumharbang)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3월 14일 다음글로벌미디어센터에서 체결했다.〈사진〉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네티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면 공동모금회에서 실사를 거쳐 다음과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연을 선정한 뒤 다음이 기부를 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선정돼 후원된 사연들은 네티즌 본인이 올린 사연이 직접 도움을 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웹사이트에도 게시돼 수동적 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네티즌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네티즌 참여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운영

했다.

또한 다음은 많은 네티즌의 참여를 위해 사연을 올리는 네티즌 중 매월 30명을 추첨, 북촌돌하르방공원 입장권을 1인 2매씩 증정할 예정이다.

다음 석종훈 대표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네티즌 스스로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네티즌의 힘이 발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터넷을 매개로 제주사회를 더욱 즐겁게 변화시키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인터넷 업계에서 유일하게 비영리 문화재단인 '다음세대 재단' (www.daumfoundation.org)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티즌 모금청원 등 다음 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통합 서비스인 '하이픈' (http://hyphen.daum.net)을 운영하고 있다.〈조순옥 명예기자〉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3) (주)파리크라상 제주공장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파티쉐



3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금릉농공단지 안에 위치한 (주)파리크라상 제주공장을 찾았다.

공장 안에 마련된 트레이닝센터에는 제주도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번갈아 찾아와 기초훈련에서 신제품교육, 보수교육 등이 매일 이뤄진다.

(주)파리크라상 제주공장은 이 훈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제빵들을 2년 전부터 매일 북부기초푸드뱅크를 통해 후원하고 있다. '빵은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365일 행복하게...'라는 홍보문구처럼 말이다.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는 "연습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빵이지만 위생과 맛,

정성은 어느 지점보다 뒤지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센터이기에 더 그러한 듯 보였다.

별써 공장의 문을 연지 두 해가 넘어간다.

제주공장 김호순 팀장은 "아직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연 시 샌드위치 판매했던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의 후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제빵 후원을 약속한 김 팀장은 "좋은 식품 나눔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경애 명예기자〉



춘강배 장애인 바둑대회

전국서 100여명 참가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3월 22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3회 춘강배 장애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둑대회에는 전국 7개 시·도 대표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여성장애인 오목대회와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알까기대회도 열렸다.

다음은 대회 결과.

▲바둑대회 △유단자조(1급 이상)=우승 양기찬(시각장애), 준우승 이동갑(지체장애), 3위 이동운·신영길(지체장애) △갑조(2~4급)=우승 송종찬(뇌병변장애), 준우승 이형근(지체장애), 3위 유인달(뇌병변장애)·고동규(신장장애) △을조(5~7급)=우승 김종수(청각장애), 준우승 민경택(신장장애), 3위 강승모(청각장애)·오창석(신장장애) △병조(8~10급)=우승 이규태(지체장애), 준우승 현동호(신장장애), 3위 배태환(지체장애)·양호인(정신지체)

▲오목대회=우승 양을순, 준우승 강승미, 3위 류진의·김연심

▲알까기대회=우승 김민범, 준우승 신재환, 3위 김병수·문현옥

알/림/마/당

■ 행복한 삶 집단프로그램리더양성교육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상담·교육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행복한 삶 집단프로그램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6월 24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강사는 제주보호관찰소 정성화 사무관이며,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064-726-3277.

■ 15일부터 장애인문화예술창작작품 교류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용언)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영등포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문화예술창작작품교류전을 갖는다.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열리는 이번 교류전에는 복지관 서예수강생 작품 45점과 한국장애인미술협회 작품 19점 등 66점이 전시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는 서울·경기지역 문화예술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기반 구축 등 문화예술향유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빛누리 실버연극단' 제주양로원 등서 공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 '빛누리 실버연극단'은 오는 7일 제주양로원 공연을 비롯해 이달에 만 총 4회의 공연을 펼친다.

60세 이상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빛누리 실버연극단'은 노인이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담은 연극공연을 통해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공연 일정=7일 제주양로원, 8일 태고원, 17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22일 동제주종합복지관.

공연신청 및 문의=064-757-3400.



■ 11일까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국폴리텍 I 대학 제주캠퍼스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CNC선반과 전자기기 등 20개 정규종목, 3D 제품디자인과 건축제도CAD 등 8개 시범종목, 레저 및 생활 기술 1개 종목 등 모두 29개 종목에 걸쳐 치러진다.

직종별 금상 입상자는 제2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오는 11일까지 대회 참가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064-756-4990.

■ 17일 제주대서 정신건강의 날 행사

제주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주지부 등과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7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2008년도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키드' 상영 및 해설, 정신건강 관련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 26일 제장복서 장애아통합보육 교육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제1차 전체교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는 김수진 안양과학대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장애아통합보육의 당위성과 기본 철학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다.

문의=064-702-0295.

Column 칼럼

‘제주 三多공동육아운동’ 등 저출산 대책에 부쳐



김 순 효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제주도의 출산율이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출생통계 잠정치치를 보면 제주도의 출산율은 1.36명(6128명)으로, 전국 평균 1.13명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영향도 있다지만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출산율이 2.1명 이상 돼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저출산 시대의 국가적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출산지원 타깃가정 확대해야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감소는 물론 고령사회문제와 맞물리면서 과중한 사회적 비용지출로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앙을 가져온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껴 참

여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마지 플랜 2010’을 계획·추진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육의 집을 열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째아 출산여성에게 50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 지원, 3자녀 이상 공무원 인사우대 등의 시책을 개발해 시행중이다. 올해는 농협과 공조하여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카드를 발행하는 한편 공동육아데이를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주 三多공동육아운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장·보육시설·기업체·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도민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매우 잘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에 부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출산지원 타깃가정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저출산지원 타깃가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정을 우선하고 있다. 이 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타깃대상은 고학력 취업여성과 서민층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면 맞벌이 등 가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취업기회의 포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고 있는

며 이러한 기회비용 손실에 대해 자녀양육비 지원과 직장생활이 가능토록 적절한 보육시설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출산율 증가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중장기 투자계획 등 전략 필요

두 번째로 저출산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하겠다. 제주도의 시책을 보면 전술(사업)은 산재돼 있으나 전략(지표설정)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조정과 협의의 네트워크, 중장기예산의 투자계획을 담은 지표와 실천전략 등 전략방안이 필요하다.

전략 없는 정책추진만 결국 계획의 빈곤과 사업의 단절로 그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민관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해 현실적인 연도별 지표와 추진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목표와 집행수단·방법간 전달과정이 명확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을 만한 ‘제주 三多공동육아운동’을 비롯한 제주도의 저출산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큰 그림과 추진전략을 요청하는 바이다.

時論 시론

아이가 많아서 행복한 제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은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미미한 형편이다. 저출산의 주 요인으로



오 익 철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소년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 비용의 과다, 일과 양육 병행의 곤란성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역량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우대혜택 제공

우리 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게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사업을 민·産·官 공동협력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사업 도입을 위해 카드명칭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해서 ‘아이사랑 행복카드’로 정하였고, 국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참여의향 조사와 심의절차를 거쳐 농협(비씨카드)을 제휴신용카드사로 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다자녀 가정(막내가 1993년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에게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출산준비물, 분유구입, 학원 수강료, 종합검진비, 안경·자동차구입, 영화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 이용시 대출금리는 내려주고 예금금리는 우대해 준다. 아이사랑 행복카드 발급시에 연회비는 평생 면제가 되며 2~3개월 무이자 할부혜택도 적용받게 된다.

둘째, 참여업체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아이사랑 행복카드 매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0.2% 할인과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도·행정시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카드 영업망을 통한 가맹점 홍보(인터넷 메일링, SMS) 등 지원혜택이 이뤄진다. 아울러 참여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참여 사업체에게 교부해 공익사업 참여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 나가고 있다.

셋째, 우리 도에도 매출액의 0.2%를 농협에서 매년 기탁하게 되어 다자녀 가정 우대사업에 재투자를 하게 되는 등 아이사랑 행복카드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수혜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도민들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한다. 도내 기관·단체·사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가 필요하며, 다자녀 가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카드를 발급받고 이용해 주어야 만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시책을 강화하여 전국 최고의 출산율이 지속되어 제주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 각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아이가 많아서 웃음이 많고 행복한 제주’를 다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의소리

만 남



양 부 임

천사의 집 생활지도원

만남이란 가장 소중한 날पाल인 것 같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형제와 친지를 만난다. 자라면서 친구, 이웃, 선생님, 직장동료, 배우자를 비롯해 심지어 들뜬에 피어있는 이를 모를 풀 한 포기, 흙날리는 바람까지도 만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인지 나는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를 좋아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가사를 한 소절씩 따라서 부르다 보면 가슴 언저리에 쌓아올린 그리움이 한 묶음이 되어 피어오르기에 더욱 이 노래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보고 싶다’란 프로를 시청했다. 3살과 6살 때 전북 군산시 삼성애육원에 맡겨 키워진 주인공 김00씨(55)가 누나(58)를 찾는 내용이었다. 누나는 11살 때 서울에 사는 목사님 집에 양녀로 가게 되면서 남매는 헤어지게 됐다.

여느 때 보다 이 프로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 내가 맡아서 양육하는 애들 중에 5살과 7살 된 남매가 있기에 느낌이 남달랐다. 다른 아이들은 가끔 부모나 인척들이 찾아와 만나주기도 하고 전화라도 걸려오는데, 이 어린 남매에게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으니 안타까움이 가득할 뿐이다. 누군가가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의 쉼터는 곳이고,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라고 말했는데, 이 어린 남매가 성장해 퇴소해서 나갔을 때 가정을 향해 재회의 메아리를 목청껏 외쳐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들려올 것 같아 가슴이 더욱 시리다.

이런저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오늘의 한국을 가치혼란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다. 삶의 일차적인 욕구해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별했다면 조금은 이해될 수도 있으나, 부모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귀한 생명들을 방임한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박꽃과 같은 하얀 웃음, 양증맞은 행동, 투정거리는 모습 등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자양분이다. 이 자양분을 부모가 적절한 사랑의 깊이로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음을 감지할 때, 내 가슴은 얼룩진 사고의 틀에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서 후련치가 않다.

3살 꼬마였던 주인공도, 밝게 커가는 남매도, 어느 날 갑자기 낯설은 시설 속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남매도 자신들이 원치 않는 만남이었지만 성인이 되어 시설에서 떠날 때는 스튜디오 앞에 뿔뿔이 선 프로그램의 주인공처럼 인생에서 가장 뜻 깊은 만남은, 사랑으로 감싸준 ‘사랑의 머무는 곳, 천사의 집’이었음을 누누이 말할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다문화사회, '새로운' 제주인 맞아들이기 세미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전환 절실”

100주년을 맞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이주민센터(센터장 김정우)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와 함께 3월 7일 다문화사회에서 '새로운' 제주인을 맞아들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주사회 결혼이민여성들의 문화갈등과 적응,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 현황 등에 대해 토론했다.



△다문화사회에서 '새로운' 제주인을 맞아들이기 위한 세미나가 제주이주민센터 등의 주최로 3월 7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염미경 교수 '이민자 지원서비스방향' 주제발표 “다양한 결혼이민자가족 교육 프로그램 필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염미경 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체계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NGO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주로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교육, 한국문화교육 등 한국문화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 활동에 치중돼 있다”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점을 문제

점으로 꼽았다.

이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다양성,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남편과 시부모 등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떤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지원보다 가족의 존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다양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심리적 고민이나 문제들에 대해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의 양성과 교육, 그리고 이들의 상담소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진정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가 진실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체제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염 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결혼절차에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결혼동기와 경로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여성결혼이민자를 우리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인권교육과 캠페인의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주와 출생 시부터 시작되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국민적인 인권 교육이 가장 절실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림과 왕따 등 구체적인 인종차별이 시작되는 유아원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인권교

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부설교육기관은 물론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평생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염 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

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염 교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기 삶을 개척하고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며 “자신의 생활세계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행위자로 살고 있고 자신의 삶에 주관적 의식과 비전

“자기 삶 개척하기 위해 결혼선택한 사람들 시혜 대상으로 보면 또 다른 인권침해 발생”

는 것은 물론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 이혼조정이나 재판을 할 경우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그 외국인에게 ‘국민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항과 체류연장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또는 시댁식구의 동의나 배우자의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의 합법적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고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우리사회의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사왔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들을 평범한 주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시혜’적 성격이 강한 일련의 정책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규리 씨가 ‘구술로 본 제주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주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토론에는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홍기룡 사무처장, 제주여성성긴급전화 1366센터 박영미(실비아 수녀)대표, 제주여성인권연대 김효선 대표 등이 참여했다.



살아숨쉬는 자연의 모든것을 드립니다.

내고향 제주!

토종할인점 **우리마트는 항상 새롭습니다.**

첫째, 고객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둘째, 단 한 품목을 팔더라도 건강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셋째, 고객 쇼핑만족실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든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마트

●도남점 T. 724-7000 ●신제주점 T. 727-5000